

숨반내, 걸매생태공원도 천지연폭포의 젖줄

제주의 물이야기
물의 도시, 서귀포

<8> 천지연 폭포수는 어디서 왔나(하)

사시사철 용천수 흐르는 숨반내
하류에는 하천변 걸매생태공원

서귀포 사람들은 천지연폭포 상류 하천을 가리켜 '숨반내'라고 부른다. 연중 용천수가 흐르는 이곳은 물이 맑고 깨끗할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해 예나 지금이나 여름철 냉수욕과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동쪽 정방폭포 상류에 '산지내'가 있다면 천지연폭포 상류에는 숨반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닮은꼴이며, 물의 도시 서귀포로서 손색이 없다.

숨반내 하류에는 하천변에 걸매생태공원이 조성됐다. 천지연폭포 상류, 서홍동에 위치하며 2002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연중 흐르는 풍부한 용천수와 하천, 울창한 난대 상록활엽수림, 야생조류가 풍부해 생태공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원 면적은 9만여㎡, 수생식물관찰원, 습지생태관찰원, 매화 및 야생조화류관찰원, 야생조류관찰원, 목재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서귀포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걸매공원 주변에는 1960~1970년대만해도 선일포도당공장이 있었다. 포도당공장은 주변에 수량이 풍부한 용천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로는 기억한다. "포도당 공장 가동을 위해 당시에는 숨반내물을 끌어다 이용했어요. 숨반내물은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아래서 솟는 물이에요. 포도당 공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남을 정도로 엄청 흘렀어요. 그 물이 상당히 좋고, 시원했어요." 서홍동 방면으로 숨반내 상류에는 크고작은 연못과 폭포, 용천수가 이어진다.

서귀포 해안엔 용천수 즐비
소정방폭포, 자구리, 소남머리 등
서귀포 시민들 즐겨찾는 명소

자구리와 소남머리

서귀포 도심은 물 기행만으로도 하루 해가 짧을 정도다. 서귀포 도심 동쪽과 서쪽



연외천 상류를 일컫는 숨반내. 물이 맑고 깨끗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을 가로지르는 동홍천과 연외천 외에도 해안에는 소정방폭포, 소남머리, 자구리, 속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소정방폭포는 정방폭포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가면 소정방이라는 5m 높이의 물줄기가 10개 있다. 여름철 물맛이 장소로 성황을 이루는 아담한 곳이다. 해안절벽 위에는 전망대가 있어 해안절경과 손에 잡힐듯이 떠있는 섬들을 감상할 수 있다.

송산동 사람들은 소남머리물과 자구리물을 애용했다. 정방폭포 상단과 이어지는 소남머리에는 주민이 드나드는 목욕탕이 있다. 1급수 용천이 흘러드는 천연 야외 노천탕이다. 자구리해안에는 자구리물이라는 용천수가 솟아난다. 바로 옆에 있는 소남머리물과 더불어 서귀포시민들의 오랜 식수원이었다.

다음은 '서귀포 물 이야기' 편에 나오는 마을 원로의 증언.

"자구리물은 바닷가에서 나는 용천수예요. 썰물 때 아니면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어서 물때를 알고 썰물 시간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어요. 학교 다니기 전에도 여름이면 해수욕 갈 때 주전자나 양동이를 들고 갔다가 해수욕 끝나고 해질 무렵이면 자구리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왔어요.(중략) 소남머리물은 365일 사시사철 흐르는 폭포수예요.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 맞는 것을 좋아해서 새벽에 가서 물을 맞았죠. 어릴 때부터 냉수마찰을 즐겼어요. 소남머리는 자구리와 달리 남탕과 여탕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개구쟁이라 물레 여탕을 보다가 들켜서 혼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강시영 제주환경문화원장(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연외천 상류에 위치한 걸매생태공원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하천.

자연환경해설사 김종호씨의 특별한 이야기

마을 하천과 샘터 답사 발굴
옛 이름 샘터 일일이 사진 담아
20여곳 지도화 변화상도 들려줘

사단법인 제주환경문화원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함께 진행중인 제주 물 이야기 강좌에서는 특별한 인물을 만났다.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태관광마을 서귀포시 호근동의 김종호 선생. 그가 풀어낸 이야기는 '호근 마을의 하천과 샘터'. 전직 교사인 김종호 선생은 호근동 토박이. 호근동 자연환경해설사, 호근동생태마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호근동의 하천과 샘터만이 아니라, 자연, 역사 등 두루두루 다 꿰뚫고 있는 듯 하다.

김종호 선생이 들려준 호근마을의 하천과 샘터 이야기는 호근동의 역사이면서 물의도시 서귀포의 축소판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살레왓, 메와진돌, 벤돌, 거문머들, 솔왓, 아근내, 여의물, 인세미, 물망소, 구시물, 함배낭물, 지평물, 절곡지, 불칸중산, 원동, 통물...

호근동 이곳저곳의 옛이름과 샘터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는 호근동 샘터 20여곳을 직접 답사하고 그 이름들을 직접 손글씨로 지도위에 써서 만든

자료를 보여줬다. 그 지도를 통해 호근동 마을을 살렸던 샘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천이 마을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지, 어디로 흘러서 어디서 다른 물길과 만나는지, 어떻게 바다에 이르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구석구석 직접 답사하면서 찍은 사진들은 호근마을의 하천과 샘터의 변화상이 절절하게 와닿았다. 하천정비사업을 했더니 솟는 물이 말라버렸다는 얘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 위쪽에 하늘이거나 오름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라는 사실, 과거 논농사는 어디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최근 호근동은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가꾸어가는 중이다. 김종호 선생이 들려준 샘물 이야기도 그러하다. 호근동 물의 역사와 선조들의 지혜를 발굴하고,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재를 기록하며 그 실태를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하는 일이다. 물의도시 서귀포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것이다. 함께 물길을 내며 오래도록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의 지혜로 막힌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일이다.

김종호 호근동 자연환경해설사

건강한 한공인! 다시 뛰는 한공인!

제34회 翰林工高同門의 날

한공인 한마당 축제에 동문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회장 좌청옥
(총동창회장)

■ 일 시 : 2022년 10월 9일(일) 10:00 ■ 장 소 : 모교운동장

주최 :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 주관 : 한림공업고등학교제37회동창회

집행위원장 송경철
(제37회 동창회장)

경기 종목

축구, 배구, 계주, 파도타기, 단체줄넘기, 풍선타겟기, 2인3각레이, 미니게임5종

시전 행사

문화예술제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19시
- 장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나눔 행사

헌혈증기부행사
애니배드장터 운영

시전 경기

골프대회 일시: 2022년 9월 14일(수) 12:30 / 장소: 라온GC

축구대회 일시: 2022년 9월 18일(일) 08시 / 장소: 월림운동장

동문가족 등산대회 일시: 2022년 10월 2일(일) 08시(종합운동장수영장옆) / 장소: 노포매로

제34대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임원

역대회장 양우철(4회) **김중근**(6회) **진성택**(9회)

김강우(10회) **홍은열**(11회) **양팔진**(12회)

현진수(16회) **고승암**(18회) **김상희**(19회)

김동완(20회) **박영부**(21회)

직전회장 배성문(22회)

회장 좌청옥(24회)

수석부회장 고경립(25회)

상임부회장 현경학(26회)

감사 고영남(28회) **조흥근**(29회)

사무처장 장군태(26회)

- 총무부회장: 윤춘철(29회) **총무이사: 정우철**(43회)

- 재무부회장: 김영호(31회) **재무이사: 문희만**(41회)

- 기획부회장: 김용수(35회) **기획이사: 양동식**(39회)

- 조직부회장: 김용식(34회) **조직이사: 문영환**(39회)

- 홍보부회장: 현상숙(33회) **홍보이사: 김양수**(40회)

- 성외부회장: 김경은(30회) **성외이사: 양현철**(38회)

- 체육부회장: 김정필(30회) **체육이사: 김희중**(40회)

- 청년부회장: 오 훈(40회) **청년이사: 이승철**(42회)

부 회 장

24회: 강승철 강재우 고봉언 고종범 고중수 고창환 29회: 양광수 고명진

고홍석 김국중 김명철 김상철 김성은 김신성 30회: 부민석 양성우

김운홍 김재훈 김택남 김희진 박재봉 박철수 31회: 강경천 강태학 김형석 양용석

양군국 양수홍 윤원호 이관홍 이명국 이상중 32회: 강경돈 고무성 문명협 좌승암

이영철 이행국 임유근 임충호 임행철 정창운 33회: 박영성 오상수 홍상기 황금진

진창홍 차민권 허평석 현창해 34회: 강 철 김성률 박정식

25회: 강동조 강택주 고방림 이봉욱 35회: 오태은 진희성

26회: 강용준 김병호 정영진 36회: 김성수 김홍배 변영진

27회: 강선희 고상중 박원철 조근배 37회: 김명식 변기정 송경철

28회: 김성철 변대주 부경환 양문수

연락처 : 제34회 한림공업고동문의날 행사집행위원회 T.712-1205 | 제주시 청사로 1길 18, 3층